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

- 모바일게임업체 GlobalFun, 남미 사업부 구조조정
- 日 Konami, 칠레에서 'Trading Card Game' 대회 개최
- STAT 베네수엘라,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가구 100만 호 돌파

모바일게임업체 GlobalFun, 남미 사업부 구조조정

Globalfun, 퍼블리싱 위주로 남미 사업부 개편

- 스웨덴에 본사를 둔 모바일게임 업체 GlobalFun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남미 사업부를 영업/퍼블리싱 중심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의 현지 개발 부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23일 발표
  - 스웨덴의 모바일게임업체 GlobalFun은 현재 북미, 남미, 유럽에 여러 지부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이동통신 관련 주요 업체(Sony Ericsson, AT&T, T-Mobile, Boost, Sprint/Nextel, Verizon Wireless, TeliaSonera, Ubbi, Vodafone, Jamba, Proximus, Mobistar, Aspiro (inpoc.se and more), Rogers/Fido, Telefonica Moviles, Claro, Personal, China Mobile 등)와 콘텐츠 제휴를 체결했음

개편 배경

- GlobalFun의 Marcus Johansson CEO는 '지금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개발부문을 통해 이룩한 여러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'며, '그러나 퍼블리싱 사업의 가능성이 남미권 전역에 걸쳐 매우 큰 만큼 새로운 체제로의 사업 개편이 불가피하다'고 설명
  - GlobalFun의 영업부문 부사장인 Bertil Krumnack 역시 '지금까지의 게임 프로젝트가 단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체적인 개발 역량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지만 남미 현지에서는 향후 한동안 영업 쪽에 무게를 둘 것'이라고 언급

web.globalfun.com

日 Konami, 칠레에서 'Trading Card Game' 대회 개최

Yu-Gi-Oh!(유희왕) TCG, 남미 선수권 대회 개최

-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주관 Yu-Gi-Oh!(유희왕) 5D's TCG의 남미 지역 선수권 대회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6월 28일 개최됨
  - 주최측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듀얼리스트(Duelists)는 무료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, 일요일을 기해 열리는 Win-a-Mat, Win-a-Giant-Card, Dragon Duel 토너먼트(12세 이하) 등의 사이드 이벤트에는 참가비가 필요함
  - Yu-Gi-Oh! TCG는 전세계적으로 200억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최대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으로 Konami Digital Entertainment가 북/남미 지역 라이선스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음

상품 내역

- 1위 수상자에게는 트로피, Yu-Gi-Oh! World Championship의 개최지인 도쿄 여행/숙박권, 'Dark End Dragon' Prize Card, 'Raging Battle' 및 'Ghosts Rare' 카드 全 세트('Tactical Evolution'에서 'Raging Battle'까지 포함됨), 디지털 카메라, 2009 Continental Championship Game 매트, Yu-Gi-Oh! TGC 웹사이트에 선수 프로필 등록, 카드 바인더, 'Ultra Rare Token Cards' 1세트(4장) 등의 경품이 주어짐
  - 2~9위까지의 수상자들도 트로피,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, 'Raging Battle' 세트, 2009 Continental Championship Game 매트, 카드 바인더, 'Ultra Rare Token Cards' 1세트(4장) 등의 상품을 받음

www.yugioh-card.com

베네수엘라,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가구 100 만 호 돌파

베네수엘라,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3.6%

- 통신장비 벤더 Cisco의 조사에 따르면, 베네수엘라의 브로드밴드 회선 수는 2008년 12월 기준 133만으로 전년 대비 62% 증가했음
-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100만 명(보급률 3.6%)에 달해 전년 대비 22% 늘었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32만 6,000 명으로 1년 사이 200% 급증
  - 베네수엘라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512kbs 수준
  - Cisco는 베네수엘라의 브로드밴드 회선 수가 유선과 모바일을 합해 늦어도 2010년 말까지 2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

남미,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 아직 10% 미만

- Cisco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남미의 브로드밴드 회선 수는 2,700만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됨
  - 국가별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페루 2.7%, 콜롬비아 4.1%, 브라질 5.2%, 아르헨티나/칠레 8.8%로 추산